프로야구, FA 등 스토브리그 '활활'

2차 드래프트 · 구단 마무리캠프 이어질 예정

도쿄올림픽 진출 '프리미어12' 대회도 관심

2019 프로야구가 한국시리즈 일정까지 마친 가운데 이제 FA시장을 비롯한 스토브리그가 팬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동시에 야구대표팀의 도쿄올림픽 진출 명운을 건 프리미어12 대회도 관심사다.

지난 3월23일 개막한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가 10월26일, 두산 베어스의 통산 6번째 통합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제 시선은 시즌 외 다른 요소에 집중될 전망. 리그는 끝났지만 볼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프로야구 기운을 이어갈 야구대표팀의 프리미어12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미 지난 11일부터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진행했다.

양현종(KIA), 민병헌(롯데) 등 소속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부터 우선 소집, 단촐한 규모로 훈련을 시작한 대표팀에는 이후 LG, NC 소속 선수가 합류했다. 지난 21일에는 김광현 등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SK 선수 4명이 추가로 가세해 현재 최종엔트리 28명 중 16명이 합류한 상태다.

그리고 한국시리즈를 마치면서 남은 두산 · 키움 선수 12명이 29일 훈련부터 참가할 예정이다.

완전체를 이룰 대표팀은 28일부터는 장소를 본 대회(예선)가 열릴 서울 고척 스카이돔으로 옮겨 본격적인 실전대비 훈련에 나선다. 30일 상무팀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11월1일과 2일, 푸에르토리코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프리미어12 2연패 및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 획득을 정조준한다. 지난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위 안에 포함되지 못한 한국은 이번에 슈퍼라운드 진출, 대만 · 호주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해야만 올림픽 진출이 가능하다.

스토브리그도 개막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규정에 따라 한국시리즈 종료 5일 뒤인 31일 '2019 FA 자격선수'를 공시한 뒤 신청을 받아 11월3일부터 시장을 열 계획이다.

이번 FA시장에는 지난해 양의지(NC)처럼 100억원 이상 대형 계약이 예상되는 선수는 없지만 중량감 있는 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KIA의 키스톤콤비인 안치홍과 김선빈, 그리고 롯데 외야수 전준우와 LG 내야수 오지환 등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참가를 앞둔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두산의 통합우승을 이끈 오재원(두산), 알토란 포수자원 이지영(키움)과 김태군(NC)에 올 시즌 KT의 선전을 주도한 베테랑 유한준과 한화의 베테랑자원(정우람, 이성열, 김태균)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은범(LG), 김강민(SK), 손승락(롯데) 등의 베테랑 자원도 FA시장에 나올 것이 유력하다.

11월말에는 2년마다 열리는 2차 드래프트가 개최된다. 이 때문에 구단별 보호선수 구성 등에 있어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미 KT, KIA 등이 지난주부터 마무리캠프를 시작한 가운데 나머지 구단들도 차례로 마무리캠프에 돌입한다. KT가 대만 카오슝, SK가 호주 캔버라, NC가 미국 애리조나로 떠나고 그 외 구단들은 국내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한다. 최근 사회분위기를 고려, 지난해와 달리 일본 마무리캠프가 자취를 감췄다.

뉴스1

'올해의 선수상' 고진영 "고국에서 확정해 더 기뻐"

어려웠던 가정 형편 얘기하다 울컥하기도

고진영(24 · 하이트진로)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세계랭킹 1위, 올해의 선수상 등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선 고진영은 과거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다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고진영은 27일 부산 기장군의 LPGA 인터내셔널 부산 밸리 · 레이크 코스(파72 · 6726야드)에서 막을 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서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고진영은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에서 241점을 기록하게 됐다. 2위 이정은6(23 · 대방건설 · 123점)에 118점 앞서있다. LPGA투어 우승자에게 30점이 주어지는데 남은 대회는 단 3개뿐이다. 고진영은 남은 대회 결과에 관계 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고진영은 "이번주 열심히 했지만 체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쉽다"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고국에서 열린 대회를 통해 올해의 선수상을 확정하게 돼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3년 프로로 전향한 고진영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10승을 기록했다. 이후 2017년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LPGA투어 출전권을 얻었다.

고진영은 미국 무대에서 데뷔전이었던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신인왕까지 거머쥐었다. 이어 이번 시즌에는 메이저대회 2승을 비롯해 시즌 4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고진영은 프로가 되기까지 집안이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과거도 털어놨다. 이어 프로가 된 이후에는 다른 것을 신경쓸 사이 없이 골프에만 집중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를 10살 때 시작했는데 집이 어려웠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지원해주셨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가 된 이후에는 빚이 많았다. 프로가 된 후, 빨리 노력해서 빚을 갚아야 겠다는 생각 뿐이었다"며 "5승, 6승을 할 때까지도 빚이 없어지지 않아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상황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고진영은 올해의 선수상 외에도 상금왕, 베어트로피(최저타수상) 등도 수상이 유력한 상태다. 이번 대회 전까지 68.901의 평균타수를 기록 중인 고진영은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보유하고 있는 역대 기록인 68.697타를 넘보고 있다.

'82승' 최고 · 최악 모두 겪은 타이거 우즈의 23년…PGA 최다승 타이 대기록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4 · 미국)보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더 많은 우승을 기록한 선수는 이제 단 한 명도 없다.

우즈는 28일 일본 지바현의 아코디아 골프 나라시노 컨트리클럽(파70 · 7041야드)에서 막을 내린 PGA 조조 챔피언십(975만달러)에서 최종합계 19언더파 261타로 일본의 마쓰야마 히데키(16언더파 264타)를 3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즈의 PGA투어 82번째 우승.

▲최연소 마스터스 우승…타이거 슬램까지

20세때인 1996년 프로로 전향한 우즈는 곧바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냈다. 그해 10월 우즈는 라스베이거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연장 전 끝에 데이비스 러브 3세를 꺾고 첫 PGA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프로 전향 후 처음 출전한 1997년 마스터스 이전까지 이미 PGA투어 3승을 기록 중이던 우즈는 무려 12타차로 미국의 톰 카이트를 제치고 21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마스터스 챔피언에 올랐다. 우즈는 마스터스 사상 첫 흑인 챔피언이었고 최소타, 최다 타수 차 등 다양한 기록을 쏟아내며 세계 골프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무려 8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2000년, 우즈는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 시즌 3승을 기록했다. 2004년 1승으로 주춤했지만 2005년 6승(메이저 2승), 2006년 8승(메이저 2승), 2007년(메이저 1승), 2008년 4승(메이저 1승), 2009년 6승 등 우즈의 상승세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 불륜 스캔들 · 끊이지 않은 부상…멀어지던 역대 최고의 꿈

영원할 것 같던 우즈였지만 2009년 11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여명의 여성이 우즈와 불륜 사이였다고 폭로하면서 우즈의 명성에 흠집이 났다. 우즈는 2004년 결혼했던 엘린 노르데그렌과 이혼까지 했다.

우즈의 경기력도 흔들렸다. 우즈는 2010년 12개 대회, 2011년 9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2시즌 연속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다.

우즈는 2012년 3승, 2013년 5승을 기록하며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우즈는 2014년부터 허리 부상으로 4번 수술대에 올랐다.

우즈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단 1번의 우승도 기록하지 못했다. 2008년 6월 US오픈 이후 메이저대회 우승 소식도 끊어졌다.

▲투어 챔피언십 · 마스터스 우승…완벽하게 부활한 골프황제

우즈의 우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우즈는 벨스파 챔피언십, PGA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서서히 예전의 경기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PGA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까지 진출한 우즈는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이 경쟁하는 대회 정상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을 알렸다. 2013년 8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후 5년1개월, 1876일 만의 승리였다. 투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높아진 기대감에 우즈는 마스터스 우승으로 부응했다.

그러나 우즈는 이후 3개의 메이저대회에서 부진했다. 시즌 종료 후 지난 8월 왼쪽 무릎을 관절경 수술을 받기도 했다. 우려는 더욱 커졌지만 우즈는 2019-20시즌 처음 출전한 조조 챔피언십 우승으로 건재를 과시했다.

시즌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며 2020년 메이저대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